



▲ 작은음악의 행사

꿈을 키우고 행복을 가꾸는 감성교육 실현

인천주안남초등학교 학교탐방



▲ 김재계 인천주안남초등학교 학교장

인천주안남초등학교(교장 김재계)의 교정은 10월의 따뜻한 햇살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연주리와 시의 향내로 가득하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창작한 시에 그림을 그려 완성한 시화가 만국기처럼 걸렸고 계단을 오르는 내내 학생들이 창작해 전시한 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시 향기에 취해 계단을 오르다보면 어느덧 도착한 강당은 아름다운 음악소리로 가득하다. 이는 인천주안남초등학교 감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10회 '함께해요! 노래해요! 시향기!> 행사로 학생들이 이번 결실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정의 역할이 축소돼 기초적인 도덕성 결여로 학교 안팎으로 여러 안과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넘어 감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 인천주안남초등학교는 '우리'보다는 '나'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시' 감성활동을 통한 아름다움 마음 갖기', '1인 1악기 연주 프로젝트'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감성교육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 생각이 자라는 주안남 문학의 숲

▲ 동시는 내 친구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인천주안남초등학교의 교실 곳곳에 학생들의 맑고 고운 동시 낭송소리가 울려 퍼진다. 학생들은 시 낭송을 통해 동시 속 다양한 표현을 접하고 이를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며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동시를 교실 내 게시하여 무궁무진한 상상시간에 집중시간 등을 이용해 읽도록 하여 평소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듯 시의 매력을 알게 된 학생들은 기

존 동시의 주제를 바꾸어 다시 쓰는 '동시 바꿔 쓰기' 나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꾸며보는 '시화 꾸미기' 등의 단계적 활동을 통해 시와 더욱 친해지게 된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 김용택 시인의 '뽕, 너는 죽었다.'를 '뽕아, 너는 죽었다.'로 고쳐 쓴 한 학생의 동시는 다른 학생들에게 큰 공감을 얻기도 하였다.

▲ 우리 모두가 시인이예요. 인천주안남초등학교의 '시 교육'은 감성이나 바꿔 쓰기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6년 동안의 시 교육을 거쳐, 학생 모두가 풍부한 시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갖춘 훌륭한 시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상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 바꿔 쓰기, 시화 꾸미기, 장로 바꾸기 등 다양한 활동의 최종 종착점은 '창작 시 쓰기'이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동시 창작이 부담 없이 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시와 가까이 지낸 인천주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지난 9월 13일 '창작 시 발표대회' 나 매년 10월에 열리는 '주안남 시 감상 축제'가 학생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시 감상 축제에 참여한 한 4학년 학생은 "이번 축제를 통해 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은 나의 작품이 학교에 전시되는 것보다 시를 짓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학교 곳곳에 전시되어있는 자신의 시화가 자부심이 되고 다른 친구들의 시를 사들인 것처럼 자랑하고 감상평을 나누는 인천주안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시인이 되었다.



▲ 1인 1악기 프로젝트

▲ 시의 향내 은은한 아름다운 주안남 시 향내 은은한 아름다운 인천주안남초등학교에서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제10회 주안남 시 감상 축제 '함께해요! 노래해요! 시향기!'를 개최한다.

인천주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부터 겨울이 시간과 아침활동시간에 시의 기초를 다지고 꾸준히 '동시 바꿔 쓰기' '시화꾸미기'를 연습하여 그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1학년 학생은 엄마 손을 꼭 잡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화 만국기에서 자기 시를 찾아 엄마에게 읽어주고 있다.

시 축제에 처음 방문한 학부모는 "공부에 쫓겨 아이들에게 시를 읽고,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마음씨도 고요해지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축제 3일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데, 운동장엔 색색깔로 바람에 팔리는 시화 만국기를 비롯하여 어울제를 따라 올라가는 계단에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시 감상 활동을 해온 결과물이 전시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까지 물려와 구경할만하다고 한다.

감성 교육의 일환인 '시 감상 축제'는 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성을 기질 수 있도록 북돋는다. 시 속에서 묻어 나오는 학생들의 감성, 예술적 능력, 그리고 그 동안의 노력들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전해준 행복한 시간이었다.

▲ 세상의 정이 되는 책, 주안남 독서교육

책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독서행사는 다양하며 그 효과 또한 있다. 인천주안남초등학교는 남구교육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독서교육을 실시했다.

△북아트 활용 교육 (1~4학년) △스토리

텔링교육(3학년) △독서는술교육(4학년) △독서토론교육(5,6학년)으로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북아트 활용교육(9.28~9.29)은 파충류의 세계,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이란 감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1,2학년 학생들은 책을 통해 파충류에 대한 정보를 얻고 폴드북을 만들었으며, 3,4학년 학생들은 세종대왕의 일생과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탐구하며 답사했다.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스토리텔링교육(10.12)은 <꿈과 땀이여!>란 책으로 진행되었으며, 3학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그림동화를 통한 구연활동, 역할극의 활동도 더해졌다.

4학년 학생들에게 국어교과서에 실린 <지구가 떠나기 밤>책으로 독서는술교육(7.13)이 진행되었다. 책 제목처럼 실제 지구에 따라기도 해보고, 내가 즐겨하는 놀이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며 설명하는 글 쓰기의 시간도 가졌다.

5,6학년 학생들은 국어 교과서 속 주인공의 삶을 읽어내 교실을 독서토론의 장으로 만들었으며, 독서 후 조이트로프를 통해 표현력을 함양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인천주안남초등학교 사서교사는 "다양한 독서교육을 경험하며,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뿌듯한 마음을 전했다.

이외에도 인천주안남초등학교는 학년별로 선정된 10가지 책으로 독서퀴즈대회를 열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했다. 모든 학생이 참여한 대회로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의 지식을 습득하고 넓은 안목을 지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인천주안남초등학교는 학년별 독서 행사를 다양하게 계획하며 책을 통해 학생들이



▲ 도서관 행사

성상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시골book책, 주안남 도서관 행사

'달빛누리'란 글을 통해 세상을 담는다는 의미의 인천주안남초등학교 도서관 이름이다. 책을 통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는 도서관에는 책을 찾는 많은 학생들의 손길이 이어진다.

학생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달빛누리 도서관에는 다양한 도서관 행사도 진행되었다.

학기별 2회 '도서연계 해방의 날'을 통해 도서 연계 선착 순 50명에게 다시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신청을 받고 대출 가능 상태로 돌려주었다.

4월에는 '달뜰한 책 추천하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 비치된 추천지에 자신이 읽은 책 중 기억에 남는 책을 추천한 학생에게 사탕을 증정했다. 또한, 4월 23일 '책의 날'을 맞이하여 대출한 학생들에게 책감피를 선물하기도 했다.

6월에는 지역별 필독도서인 <아리랑 일곱둥지> '원화 전시'를 통해 다양한 독서 방법을 안내하며 '원화 따라 그리기', '감상평 쓰기' 등의 독후 활동을 제시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끝내는 활동을 넘어서서 그 책의 폭을 확장시키고 국어, 미술 교과와 연계해 색다른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간도서 이벤트인 <행운 광장 이벤트>로 신간도서 2권을 대출하면 행운 광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했다.

도서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서관은 책만 가득한 지루한 곳이라 생각했는데 색다른 활동이 많아 자주 찾게 됐다"며 특별한 경험으로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주안남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앞으로 도서관을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음악이 흐르고, 열정이 켜지는 주안남 교정

▲ 1인 1악기 프로젝트 인천주안남초등학교의 아침은 여러 가지 악기소리로 가득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활동 시간에 학급별로 악기를 연주하며 실력을 기르기 때문이다. 학년 별 수준에 맞게 1,2학년은 멜로디언, 3,4학년은 리코더, 5,6학년은 오카리나를 배운다.

'1인 1악기 프로젝트'는 모든 학생들이 1가지 악기를 집중적으로 연습해 '달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악기를 하나씩 연주하다 보면 어느덧 인천주안남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느 곳에서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 함께 하는 음악아리랑, 음악의 후예들

인천주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악과 악기에 대한 사랑은 대단하다. 학년에서 운영되는 1인 1악기 외에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음악동아리를 결성하여 인천주안남초등학교 음악동아리 : 음악의 후예들, 방과 후 오카리나와 호모미아 연주를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

음악동아리 학생들은 학교의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행사에 초청되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지난 9월엔 지역행사인 주안미디어축제에 초청되어 그 동안 연습하였던 다양한 곡을 연주하며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